

종(從)의 영(靈)인가? 양자(養子)의 영(靈)인가? (2)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경외심이나 경건한 두려움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령, 빌립보서 2:12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28에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였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 다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는가? 서로 모순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언급한 두려고 떨림과 경건한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께 바른 관계, 존경과 사랑에 기초를 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나에게 벌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정죄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섬섬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저버린 배은망덕함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는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서 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루셨음을 믿는다.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율법아래서 해방된 자임을 믿는다. 더 이상 그는 얽매이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요, 아들의 신분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증거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극적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롬 8:15).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역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고백이요 외침이요 부르짖음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양자로 받아 들여졌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뜻이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듯이 매우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노예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직 자유인의 아들만이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였던 호칭도 바로 “아바 아버지”이었다(막 14:36).

그리고 “부르짖느니라”는 말씀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 깊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뜻한다. 매우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인 것이다. 이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냉랭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는다. 그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모든 것이 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하며 즐겨 부르짖고 달려가며 품에 안기는 그 자발성이다. 동시에 이것은 확신에 찬 표현이다. 아버지께 대한 신뢰에 근거한 부르짖음인 것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과 확신에 넘친 태도로 하나님께 달려나간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바(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는가? 당신에게 이런 마음과 행동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확실히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증거이다.